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28 호

2020 년 6 월 1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202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정기총회 및 TGE 런칭/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사례집 발간 결과 보고 (5/28)
2. 기업 재생에너지 얼라이언스(Corporate RE Alliance, CREA) 안내
3. UNGC 온라인 리더스 서밋 2020 안내 (6/15~16)
4.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기업연대(#UnitingBusiness) 영상 메시지 제출 안내
5. 2020 AVPN 온라인 컨퍼런스(Virtual Conference) 개최 안내 (6/8~12)

■ 본부 소식

1. 유엔사무총장, 차기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에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임명
2. [Executive Update] 세계적으로 불확실한 지금, 1.5°C 미래에 투자할 때
3. 전 세계 150 여개 기업,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zero)'의 코로나 19 회복 촉구

■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DGB 금융그룹
2. [SDGs 솔루션] 전기가 없는 지역, 태양열 허브로 밝히다
3. [SDG 미디어 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식에서 행동으로
 - 샘 발라지(Sam Balaji) 딜로이트 컨설팅 CEO 등 2 명

■ UNGC 회원 뉴스

1. 길바이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2. 포스코, 윤리적 광물구매 강화... '책임 있는 광물 구매 연합' 가입
3. 우리은행, 여성 행원 유니폼 없앤다

■ CSR 뉴스

1. “AR 놀이터 만들고, 드론으로 마스크 전달” …UNGC, 국내 기업 ‘코로나 19 대응 사례’ 발표
2. “ESG 투자 변방의 아시아, 이제 주류지역으로 부상”
3.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 포함”
4. 코로나 19 는 ‘여성 재난’… UN “여성 리더십 키우고 지원책 마련하라”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20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202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정기총회 및 TGE 런칭/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사례집 발간 결과 보고 (5/28)



202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정기총회가 회원 대표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5 월 28 일(목)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본 회의 안건 의결뿐만 아니라 반기문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의 특별강연, 타깃젠더이퀄리티(Target Gender Equality, TGE) 런칭과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UNGC 회원사 대응 사례집> 발간 세레모니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더 연기하기 어려운 보고 사안들이 있어 부득이 총회를 가지게 되었지만, 아직 대규모 모임 개최에 대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개인 위생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는 당부로 개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간 협회가 해오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자문과 연구조사 등의 역할을 보다 보강하고자 노력하고 코로나 19 이후 보다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해결방법에 대해 고민하며, UNGC 10 대 원칙과 SDGs 의 17 개 목표에 맞추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정기총회는 △ 2020 총회 의제 및 전기 회의록 채택 △이사 일부 변경 의결 △2019 사업, 결산 보고 및 의결 △2020 사업 계획, 예산안, 중장기 계획 보고 및 의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회원들은 이를 청취한 후 승인하였습니다.

특히 이사변경과 관련하여 △유엔글로벌콤팩트 이동건 회장 △유엔한국협회 선준영 명예회장 △학교법인 연세대 양일선 이사, △고려대 문형구 교수 △유한킴벌리 최규복 사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이 연임되었고, △카톨릭대 김기찬 교수 △전 대한상공회의소 김준동 상근 부회장 △세계군인스포츠위원회 손희걸 특별보좌관이 이사직을 사임하였습니다. △에이티넘 파트너스 이민주 회장 △ 김앤장 현천욱 대표변호사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새롭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본 회의에 이어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이자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의 <COVID-19와 유엔글로벌콤팩트>에 대한 특별강연이 있었습니다.



반기문 명예회장은 "제 전임자셨던 코피 아난이 New-Millennial 정신을 바탕으로 2000 년 추진한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올해로 20 주년이 되었습니다. 한국 협회도 제가 총장으로 취임한 2007 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13 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기업인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인 4 대 분야의 10 대 원칙을 기업 내에 주류화하고 기업의 활동이 SDGs 와 방향을 같이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국협회가 지난 2007년 이래로 계속 발전을 이루어 온 것에도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기문 명예회장은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 간, 지역 간, 개인 간 관계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불균형이 여실히 드러나고,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인종차별과 제노포비아와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런 때일수록 Solidarity(연대), Compassion(컴패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본주의와 다자주의가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Global Citizenship(세계시민의식)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도시의 시민, 한국인이기 이전에 세계시민이어야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없다면 팬데믹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기문 명예회장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전세계 언론에서 질병 관리를 잘하는 선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전에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욱 큰 그림을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큰 그림이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제가 늘 우리 정부에도 강조하는 것은, 코로나 19 를 위한 백신을 개발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회복하기 위한 패키지도 중요하지만, 절대 Climate Action 을 후순위에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라며, “얼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지만 한국이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며,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 운영되는 모든 활동은 이제 그린뉴딜을 기본 바탕으로 회색 경제에서 녹색경제로 전환하는데 일조해야 합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여성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이 런칭되었습니다. TGE(Target Gender Equality)는 UNGC 회원사의 여성임원 비율 향상을 목표로 전 세계 20 여개국에서 올해 첫 런칭되는 글로벌 프로그램입니다. TGE 참여 기업은 SDGs 5 번째 목표(성평등)의 세부 목표(5.5)인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노력하며, 앞으로 1 년 간 UNGC 의 지원 하에 WEPS 성 격차 분석 툴 기반의 성과 분석과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에 참여해 여성 리더십과 여성임원비율 향상을 위한 세부 목표와 이행 플랜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2020 년 타깃 젠더 이퀄리티 참여 기업은 △BGF, △CJ 제일제당, △DGB 금융지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KT, △LG 화학, △(주)롯데, △SK 텔레콤, △슬로워크 등 9 곳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특별한 사례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코로나 19와 기업 지속가능성 - UNGC 회원사 대응 사례집>은 코로나 19 팬데믹에 맞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 UNGC 회원사들의 사례를 한데 모은 자료입니다. 국내 26 개 기업 및 기관이 코로나 19 대응하기 위해 각각의 업(業)에 부합하는 기업 내부적, 외부적 그리고 향후 회복 계획에 대해 공유해 주셨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이달 국문본에 이어 다음달 영문본을 연이어 출간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 사회에 본 사례집을 적극 소개하고, 국제사회가 우리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전 인류의 건강을 증진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문 사례집 참여기업은 △국민연금공단 △(주)두산 △두산인프라코어 △부산경제진흥원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슬로워크 △아모레퍼시픽 △유한킴벌리 △인천시설공단 △코오롱인더스트리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중부발전 △DGB 금융그룹 △LG 전자 △LG 화학 △KT △SK 텔레콤입니다.





본 행사의 말미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다채로운 사업들이 소개되었습니다.

	<p>[BIS]</p> <p>Business Integrity Society(BIS)는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반부패 공동 노력 프로젝트입니다. 2019 년 세계은행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의 3 번째 펀딩 라운드에서 선정되어 2022 년까지 3 년간 유엔글로벌콤팩트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공동으로 운영되며, 기업을 비롯한 정부, 국제기구, 산업협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부패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p> <p>BIS 웹페이지는 본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 반부패 윤리경영 관련 동향, 언론보도, 반부패 자료 등을 한곳에서 보실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p> <p>www.bis.or.kr</p>
<p>Gender Equality Korea (GEK)</p>	<p>[젠더 이퀄리티 코리아]</p> <p>온라인 플랫폼인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GEK)’ 웹사이트가 지난 4 월 런칭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여성신문이 파트너로 지원하는 본 플랫폼은 우리 기업 및 기관들이 국내외 기준에 맞는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대표성 향상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산발적으로 공유되던 국내외 여성 이슈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국문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p> <p>www.gender-equality.or.kr</p>

<div data-bbox="231 280 718 593" data-label="Image"> </div>	<p>[SDG 액션 매니저]</p> <p>SDG 액션 매니저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기업 활동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SDGs 임팩트 관리 툴로 올해 2월 런칭했습니다.</p> <p>UNGC 와 비레이 공동 개발했으며, UNDP, GRI, 덴마크 인권연구소 등 전문 자문단이 참여했습니다.</p> <p>웹페이지에 방문하여 자사 기업 정보를 입력하면, 기업과 연계된 SDG 목표를 추천을 받으실 수 있고, 목표 별 질문에 모두 답할 시, 우리 조직의 SDGs 이행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p>
<div data-bbox="231 784 718 1075" data-label="Image"> </div>	<p>[Sustainable Ocean Principles]</p> <p>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19년 9월 제 74차 유엔 총회의 부대행사인 ‘지속가능한 해양산업을 위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액션 플랫폼’을 통해 기업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의 보전을 촉구하는 9가지의 ‘지속가능한 해양 원칙(Sustainable Ocean Principle)’을 발표했습니다.</p> <p>‘2030년까지 건강하고 생산적인 해양을 만들기 위한 5가지 티핑포인트’ 브로셔는 해양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 목표로서 완전한 수산물 이력관리, 무배출 항해, 해양 전력 발전, 해양 맵핑, 해양 폐기물 유입 중단이라는 5가지 티핑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p>
<div data-bbox="231 1276 718 1568" data-label="Image"> </div>	<p>BI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협회는 인센티브와 기업 윤리를 주제로 한 영국 투명성 기구의 발간자료 "Incentivising Ethics"를 번역 및 발간하였습니다. 본 발간물에는 직원들의 올바른 행동을 장려하는 인센티브가 오히려 비윤리적 관행의 동기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들과 관련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질적인 인센티브 리스크 파악과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 및 이행하기 위한 상세한 절차를 “Incentivising Ethic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BIS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p>

이번 총회는 UNGC 한국협회 회원들과 2020 년 사업계획, 예산안, 중장기 계획을 공유하며 사업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이 함께 협회의 코로나 19 주의사항 지침에 따라 질서를 지키며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행사가 된 점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기총회와 타깃젠더이퀄리티(TGE), <코로나 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 UNGC 회원사 대응 사례집>에 참여해 주신 모든 대표 및 임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0 년에도 많은 협조와 참여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주의사항



- 사전에 보내드린 온라인 문진표를 미작성하신 경우, 우측 QR코드로 접속해 온라인 문진표를 작성해주시거나 등록데스크에 배치된 문진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장 입장 전 반드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해주시시오.
- 행사장 입장 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시오.
- 다중이용시설을 접촉 시 손 소독제를 사용해주시시오.
- 식사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등록데스크에서 마스크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신체접촉을 최소화해주시기 바라며, 대화 시 거리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침 및 재채기 시 휴지 및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시시오.
- 의심증상 발생 시 협회 직원에게 바로 알려주시시오.

온라인 문진표 작성하기 ▼



[미디어 커버리지 하이라이트]

조선일보, 문화체육
더나은미래 10
 2019-2020
 (http://futurechosun.com)

Q (http://futi

"AR 놀이터 만들고, 드론으로 마스크 전달" ...UNG, 국내 기업 '코로나19 대응 사례' 발표

다나온미래 | 허창현 기자(http://futurechosun.com/archives/author/hoochosun.com)

입력 2020.05.29. 14:18



28일 서울 광화문 모시콘스 호텔에서 열린 UNGC 한국협회 정기총회에서 반기문 명예회장이(앞줄 왼쪽에서 8번째)와 참석자들이 SDGs 17개 목표 현물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UNG 한국협회

"AR(증강현실) 기반 동물 사진, 영상을 공유해 집 밖에서 놀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가상 놀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SK텔레콤)

"온라인 학습을 위해 국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용 스마트패드 6000대 기부물, 헌터·뉴욕 등 자사소유 육외광고판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독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LG전자)

HOME > 지역본부 > 경기북부

한국임업진흥원, UNGC 코로나19와 기업 지속가능성 세레모니 참여

김광현 기자 | © 승인 2020.05.29 13:46

UNGC 회원사 코로나19 대응 사례집 발간



코로나19와 기업 지속가능성 사례집 발간



류복경

'코로나19 대응 사례집' 발간 행사

서울=연합뉴스) 28일 서울 광화문 모시콘스 호텔에서 열린 (사)한국임업진흥원(UNG) 한국협회 정기총회에서 반기문 명예회장이(앞줄 왼쪽에서 8번째)와 참석자들이 SDGs 17개 목표 현물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UNG 한국협회

뉴스IS

산업 > 산업일반

CJ제일제당, 양성평등 앞장 선다

등록 2020-05-29 14:07:59



[서울=뉴스IS] 손정빈 기자 = CJ제일제당이 여성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선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모시콘스 호텔에서 열린 UNGC(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TGE(Target Gender Equality)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했다. TGE는 UNGC에 가입한 기업의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리더십 기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UNGC 회원사 여성 임원 비율 향상을 목표로 한다.

- 2020 주요 사업 계획 보기
- BIS 홈페이지 바로가기
- GEK(젠더 이퀄리티 코리아) 홈페이지 바로가기
- SDG 액션 매니저 알아보기
- Sustainable Ocean Principles
- 영국 투명성 기구(TI-UK) Incentivising Ethics 알아보기

2. 기업 재생에너지 얼라이언스(Corporate RE Alliance, CREA) 안내



CREA 소개 | What is the Corporate RE Alliance?

기업 재생에너지 얼라이언스(Corporate Renewable Energy Alliance: CREA)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선언하고 그에 따른 목표의 수행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CREA 파트너기구인 WWF와 CDP, UNGC가 공동으로 구축한 얼라이언스이다. 기업이 공개적으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선언하는 행위는 경쟁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플랫폼으로서 CREA는 다양한 기업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CREA 수립 목적 | What is the purpose of the CREA?

CREA파트너기구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과 협업해왔지만, 더욱더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량을 증진하고 정부 정책 및 기업간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CREA는 기업이 모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정보를 교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허브로서 역할을 제공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100 이니셔티브

The Climate Group 과 CDP 가 시작한 캠페인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에너지를 100%로 재생에너지로 소비하겠다는 의지를 기업이 선언하고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의 제시 및 실적 보고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입증 받는다. 2020 년 5 월 기준 구글, 나이키, 소니, 스타벅스, 켈로그, 코카콜라를 비롯한 234 개 기업이 참여 중이며, 이미 최종목표인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달성한 기업도 있다.

재생에너지구매자연합(Renewable Energy Buyers Alliance: REBA)

재생에너지 구매를 희망하는 재생에너지 사용자와 공급자를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구매 연합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수요 및 구매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서로 협력한다. 주요 목적은 에너지 소비자인 기업이 재생 가능한 청정 전기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고 다양한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 모색과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더욱 경쟁력 높은 재생에너지 구매 시장을 구축하는데 있다. 2020 년 5 월 기준 REBA 에는 기업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약 200 개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CREA 참여를 통한 기대효과 | Benefits of joining the CREA

CREA는 얼라이언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목표가 있다. 참여 기업은 파트너기구가 제공하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방안을 수립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기회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전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CREA 운영 프로그램 | What does the CREA offer?

CREA에서는 가능한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다양한 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세미나, 워크숍, 이해관계자 미팅을 통한 **기업의 인식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 공유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다. 실무진 대상으로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고위직 수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공식 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돕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설정**을 위한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분	내용	일정	비고
CREA 런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WWF "Climate Action Conference"와 연계하여 "CREA" 런칭 	2020년 6월 24일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기업의 실무진을 대상 분기별 스터디 그룹 운영 	7, 9, 11월 중	개인 자격으로도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실무진 대상 가이드라인 발간 	12월	스터디그룹 내용을 기반으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P4G Summit 의 세션 중 기업 재생에너지 관련 세미나 주최 	2021년 중	COVID-19로 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GC Korea "Leaders Summit"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 세션 진행 	11월	경영진 참여 세션 조정 가능
재생에너지 조달 향상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에너지 조달 원칙 발간 	하반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기업, 정책입안자, 정부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간 (비)공식 미팅 주최 	정책 도입 시기 전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기업을 포함 30개 이상의 기업 대상 설문조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에너지 조달 정책 관련 국회와 연계하여 포럼 개최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설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설정 지원을 위한 개별 미팅 진행 	수시	

※ 상기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여 | 기타 사항 문의

gckorea@globalcompact.kr 02-749-2149/50

climate@wwfkorea.or.kr 070-7463-4244

3. UNGC 온라인 리더스 서밋 2020 안내 (6/15~16)

2020년 6월 15일, UNGC 출범 20주년을 축하하며 코로나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전 세계 수 천명의 리더들이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UNGC 온라인 리더스 서밋 2020'에 참석합니다. 기업, 정부, 유엔 및 국제사회, 시민단체, 아카데미아 등이 참여하는 이번 온라인 리더스 서밋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함께 재건해나가야 할 더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모임입니다. 모두가 초청된 이번 리더스 서밋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로로부터 배우고 글로벌 목표 이행을 위한 노력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리더스 서밋 참가신청

리더스 서밋 행사 관련 문의 사항은 UNGC 한국협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서울시간 기준)

6월 15일			
21:00~22:00	개회식		
	환영사: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업 연대 Lise Kingo, António Guterres, Tijjani Muhammad-Bande, Mark Carney		
22:00~22:15	고위급 세션: 빠른 회복을 위한 SDG 포부(Ambition)		
	UNGC 및 지속가능기업의 지난 20년간 성장 Remi Erikson		
22:15~23:00	패널 토의: 변화와 복구를 위한 로드맵에 대한 고찰 Femi Oke, Suphachai Chearavanont		
23:00~23:30	SDG 포부: 복구 및 조치를 위한 비즈니스 영향 확대 Julie Sweet, Lise Kingo		
23:30~00:30	SDG 포부: Better & Stronger Recovery (1부) Peter Lacy, Roberto Marques		
6월 16일			
00:30~01:00	코로나 이후의 SDG 리더십 Lise Kingo, Clarke Murphy, Jim Hagemann Snabe		
01:15~01:45	질병으로부터 회복탄력성을 지닌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연대 Phil Thompson		
01:45~02:00	위기 속 리더십: Recover Better, Recover Stronger, Recover Together Al Gore		
02:00~03:00	심화 세션 1부		
	SDG 포부	UNGC 20년 성과 및 앞으로의 방향	글로벌 목표를 위한 리더십
	수자원 회복탄력성	위기 대처와 장기적 회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	SDGs와 코로나19: 북아메리카
03:00~04:00	심화 세션 2부		
	해양 행동	청년 SDG 혁신가	Target Gender Equality
	인권	성공적인 파트너십 공략	지속 가능한 투자와 코로나19
04:00~05:00	글로벌 타운 홀(Town Hall)		

	코로나 19 이후의 사회 및 환경 이슈: 라틴 아메리카 사례		
05:00~07:00	글로벌 타운 홀		
	코로나19에 대한 인도주의적 대응 David Beasley, Henrietta Holsman Fore, Mark Lowcock		
05:00~06:00	코로나19와 인종차별 UNGC 브라질 협회		
05:00 - 07:00	코로나19와 멕시코의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 연대		
06:00 - 07:00	포스트 코로나19: 인권 및 반부패 Mauricio López, Ricardo Garzón, Susanne Friedrich, Germán Humberto Henao Sarmiento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동노력	
	07:00~09:00 UNGC 호주협회 타운 홀		
	패널 토의: 위기 속 기후행동	뇌물 방지와 SDGs 파트너십 구축	
09:00~11:00	UNGC 중국 협회 타운 홀		
	코로나19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 Stephen Kehoe, Amita Chaudhury, Gauden Galea, Nicolas Vix, Li Zhenguo	UNGC 'SDGs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대일로" 인프라' 액션 플랫폼 공개 Ren Hongbin	
11:00~12:00	글로벌 타운 홀		
	UNGC 동남아 네트워크		
11:00~11:59	SDGs와 리더십		
	SDGs와 리더십: 중국(22:00~23:00) Russel Reynolds Associates	SDGs와 리더십: 동남아(23:00~24:00) Russel Reynolds Associates	
12:00	UNGC 인도네시아 협회 타운 홀		
	뉴 노멀 시대에 적응하는 기업 (00:00~01:00)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23:00~00:00)	
12:00~12:59	글로벌 타운 홀		
	Build Back Better: 오늘의 결정이 미래를 결정한다 UNGC 태국 협회	팬데믹 이후의 환경행동 UNGC 싱가포르 협회	
13:00~15:00	글로벌 타운 홀		
	기업의 SDGs 내재화: 인도 사례 Shashi Shanker, Uddesh Kohli, Kamal Singh, Shweta Rajpal Kohli		
15:00~16:00	글로벌 타운 홀		
	Multi-Stakeholder 성과 UNGC 네덜란드 협회	SDGs와 청소년 UNGC 중동 협회	SDGs와 파키스탄 기업들의 철학 UNGC 파키스탄 협회
16:00~17:00	고위급 세션 (09:00~12:00 CET)		
	UNGC 10대 원칙과 코로나19 이후의 회복 Guy Ryder, Michelle Bachelet, Inger Andersen, Ghada Fathi Waly, Nozipho Tshabalala		
17:00~18:00	기후 앰비션: 코로나 이후의 1.5℃ 목표 이행 Ban Ki-moon, Patricia Espinosa, Nigel Topping, Sharan Burrow, Jose Manuel Entrecanales Domecq		
18:00~19:00	SDG 포부: Better & Stronger Recovery (2부) Peter Lacy, Sunny Verghese, Ann Rosenberg, Fani Titi, Helena Helmersson		
19:00~20:00	글로벌 타운 홀		
	해양 행동	지속가능한 리더십 Russel Reynolds Associates	UNGC 터키 협회
	지속 가능한 회복 Enrico Giovannini, Filippo	SDGs와 기후변화 UNGC 동유럽 협회	

	Bettini, Marco Frey, Manuela Korn		
19:00~20:00	글로벌 타운 홀		
	SDGs에 대한 새로운 시선 UNGC 러시아 협회	미래의 방향: 깨끗한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해양	팬데믹으로 인한 기업들의 장기적 변화 UNGC 불가리아 협회
20:00~22:00	글로벌 타운 홀		
	코로나19와 경제 회복: 남아시아 사례 Saeed Ghani, Chandni Joshi, Farzanah Choudhury, Katie Beirne Fallon, Fasih-ul-Karim Siddiqi, Shahamin S. Zaman, Krishna Shah		
20:00~21:00	글로벌 타운 홀		
	기업과 인권 Cristina Sánchez, Daniela Bernacchi, Steve Kenzie, Marcel Engel, Fella Imalhayene	UNGC 아프리카 협회	기후변화와 TGE UNGC 스리랑카 협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파트너십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민관협력 Li Yong, Hayfa Khalfaoui, Elisabeth Moreno, Angus Rennie	
21:00~22:00	UNGC 나이지리아 협회	서유럽, 북아프리카 중소기업들의 코로나19 대응 전략 UNGC 아프리카, 프랑스 협회	청년 SDG 혁신가
22:00~22:10	폐회식		
	글로벌 변화를 위한 로컬 행동 Amina Mohammed		
22:15~23:00	이임식: '행동의 10년'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 Lise Kingo, Sanda Ojiambo		
23:00~00:00	폐회식 리셉션		

연사



António Guterres,
UN 사무총장



Lise Kingo,
UNGC 사무총장



Sanda Ojiambo
UNGC 사무총장(예정)



Ban Ki-Moon
The Elders 부위원장
제 8 대 UN 사무총장



Al Gore
Climate Reality Project 회장
제 45대 미국 부통령



Carlos Alvarado
제48대 코스타리카 대통령



Alan Jope,
Unilever CEO



Julie Sweet,
Accenture C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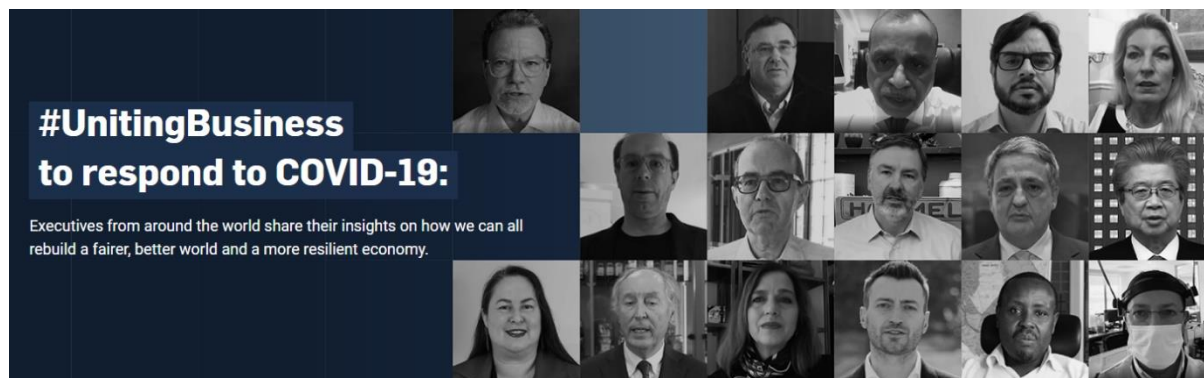
Jim Hagemann Snabe,
A. P. Moller Maersk 회장,
Siemens AG 이사회 의장,
Allianz SE 이사회 부의장

금번 온라인 리더스 서밋은 디지털 플랫폼인 "Hopin"을 통해 진행됩니다. 참가신청 후 Hopin 플랫폼에서 참가하고 싶은 세션을 스케줄에 추가할 수 있고, 행사 시작 후에는 세계 곳곳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당하고 있는 타 참가자와 직접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됩니다.

*UNGC 회원사는 Virtual Leaders Summit 에 무료로 참가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상단의 참가신청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회원사는 소정의 비용으로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구매 관련 문의는 한국협회 사무처(02-749-2149/50)로 연락 바랍니다.

* UNGC 비회원에게는 참가비 \$99 가 청구됩니다.

4.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기업연대(#UnitingBusiness) 영상 메시지 제출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기업연대(#UnitingBusiness)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회원사 CEO 들이 자사의 코로나 19 대응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영상 메시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 캠페인을 통해 회원사라면 누구나 68 개의 로컬 네트워크와 10,000 여개의 기업들에게 우리 기업의 아이디어, 조언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 웹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 게재되며 한국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한 가지 언어를 선택해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영상의 주제는 다음과 같이 총 세 가지로, 기업당 최대 3개의 영상(주제당 1개)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대응(Response):** 코로나19는 귀사의 인력, 지역사회 및 기업 활동에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6월 1일 기준 총 62개 기업 참여 | 주요 참여기업: Ford motor company, Enel s.p.a. 등)
- 2) **회복(Recovery):** 귀사는 장기적인 비즈니스 연속성과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월 1일 기준 총 30개 기업 참여 | 주요 참여기업: Inter-IKEA Group, Schneider Electric 등)
- 3) **복원(Resilience):** 복원력(Resilience)을 구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6월 1일 기준 총 18개 기업 참여 | 주요 참여기업: T-mobile, Saint-Gobain 등)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UNGC 한국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EO 영상 메시지 예시



제니퍼 스캔론(Jennifer Scanlon) 유엘(UL) CEO

- 직장 내 PPE(개인용 보호구) 및 위생 프로세스를 강화해 직원 보호
- 호흡기 및 중환자실용 의료기기 공급 개선
- 소독장비 및 건강관리시설 등에 사용되는 UBC 살균장치 인증
- [영상 바로가기](#)



패트릭 푸안(Patrick Pouyanné) 토탈(Total) CEO

-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자사의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
- 40 개 언어로 24 시간 운영되는 코로나 19 핫라인 개설
- 대다수의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마스크 제공
- [영상 바로가기](#)



장 파스칼 트리쿠아(Jean-Pascal Tricoire)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CEO

- 보건 관련 법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을 전개 중인 모든 국가 및 지역사회의 당국과 긴밀히 협력
- 데이터, 교통 네트워크, 스마트 시티, 데이터 전송 등 필수적인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 [영상 바로가기](#)



마나베 스나오(Sunao Manabe) 다이이찌산쿄(Daiichi Sankyo) CEO

- 제약회사로서 약품의 안정적 공급 확립
- 코로나 19 발생 이후 긴급 대응 팀을 구성해 확산 방지에 대처
- 직원들의 안전을 우선 시하는 업무 방식 추구
- 코로나 19 를 위한 백신 및 약품 연구개발
- [영상 바로가기](#)

CEO 영상 메시지 제출하기

CEO 영상 메시지 보기

5. 2020 AVPN 온라인 컨퍼런스(Virtual Conference) 개최 안내 (6/8~12)



AVPN은 아시아 지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Social Purpose Organization(SPO)들에게 사업자금, 대출, 자본투자, 역량강화, 지식 전수 등을 지원하는 기관들(Funder)의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AVPN은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32개국 600여개 재단, 대기업, 정부기관, 임팩트 투자자 등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AVPN은 회원사들이 사업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회원들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원기관(Funder)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Fundee)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 사회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회원사들을 위한 교육 Webinar 제공, 연구보고서 출간, 정책 포럼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0 AVPN Virtual Conference 개최 안내

AVPN에서는 회원사 및 파트너사를 한 자리에 초청하여 싱가포르에서 매년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6월 8~12일 (총 5일) 간 Virtual Conference로 진행됩니다. 이번 Conference는 △협력, △젠더, △기후변화대응, △자선사업, △임팩트 투자 등 총 5개의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며, 각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CEO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참여자들 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도 마련되어 있으니 네트워킹 기회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UNGC 회원사는 컨퍼런스 참여 티켓 구매 시 'Outreach Partner'를 선택하면 50%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컨퍼런스 참가신청

본부 소식

1. 유엔사무총장, 차기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에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임명



리세 킹고와 산다 오잠보 (2018년 9월 뉴욕)

**6월 17일, 케냐 출신 비즈니스 리더 산다 오잠보, 리세 킹고(Lise Kingo) 뒤이어
세계 최대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으로 취임 예정**

뉴욕 유엔 본부, 2020년 5월 22일 — 안토니오 구테레스(Antó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은 22일 케냐 출신의 산다 오잠보를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차기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며, 그간 유엔글로벌콤팩트에 헌신해 온 리세 킹고 사무총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산다 오잠보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두 번째 여성으로서, 전략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를 이끌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에 기여해온 리세 킹고의 뒤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산다 오잠보는 2010년부터 케냐 사파리콤(Safaricom Plc)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및 소셜임팩트 총괄로 일해왔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사파리콤과 MPESA 재단의 고위급 관리자로 재직하며 각종 유엔 기구들과 함께 민관 협력사업들을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20여 년 간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6월 17일부터 유엔글로벌콤팩트를 새로 이끌어 갈 산다 오잠보는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나가도록 돕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민간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산다 오잠보는 UNDP 및 CARE International과 함께 소말리아에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커리어 전반에 걸쳐 기업 및 시민사회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원만히 유지해왔습니다. 그녀는 캐나다 맥길 대학교(McGill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및 국제개발학 학사학위를,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난 해 말, 5 년 간 맡아온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직에서 올해 6 월 물러날 것을 발표했던 리세 킹고는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의 새로운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임명을 환영하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저는 개발도상국(Global South)의 강한 여성 리더가 제 뒤를 이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라는 사실에 무척 기쁩니다. 그녀의 국제적인 경험들과 청렴성, 그리고 고무적인 비전은 우리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앞으로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기업들과 그 이해관계자들이 활동을 키워나가며 우리가 바라는 모습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리세 킹고는 다가오는 6 월 16 일, 유엔글로벌콤팩트 출범 20 주년을 축하하며 열리는 ‘2020 온라인 리더스 서밋’에서 산다 오잠보에게 사무총장직을 이양할 예정입니다. 올해 리더스 서밋은 보다 포용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고, 탄소배출 저감과 기후 복원을 위해 노력하는 세상을 추구하며, 나아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길을 모색하고자 기업, 정부, 유엔 및 국제사회, 시민단체, 학계 등 전 세계 수천 명의 리더들이 24 시간동안 모여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2000년 7월 출범해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 대 원칙 및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키도록 권장하는 유엔사무총장 직속의 정책, 전략 및 옹호(Advocacy) 이니셔티브입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 68 개의 지역 협회 소관 아래 162 개국 10,000 여 개의 기업 회원 및 3,000 여 개의 비영리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의 지지 아래,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업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원문 보기

2. [Executive Update] 세계적으로 불확실한 지금, 1.5°C 미래 투자할 때



저명한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광기(Insanity)’에 대해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사회적, 경제적 충격에 맞서며 수조 달러가 경제 회복에 쏟아져 들어가는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 위기인 지금의 상황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회복탄력성을 길러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공급망을 교란하며 심각한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진전을 막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인간과 모든 자연 시스템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기를 계속해서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위기는 연결되어 있기에 때문에 한 가지만 선택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지구의 건강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으며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현재 세계 최대 경제대국들의 경제 회복과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한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수조 달러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순 제로(Net-zero) 경제 구축을 위해 전 세계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현 상황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정상들은 코로나19 복구 계획 및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순 제로 기후 목표를 세울 것을 촉구하는 [유엔 최대의 CEO 주도 옹호 노력\(CEO-led advocacy effort\)](#)에 동참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와 [과학적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TBi\)](#) 파트너들이 주도한 이번 성명서에는 시가 총액 2조 4000억 달러 이상을 대표하는 세계 유수의 기업 CEO 160여명이 지지를 표했습니다.

이 CEO들의 리더십은 확고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이들이 과학적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TBi)와 [1.5°C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 앰비션 캠페인](#)에 참여해 야심 찬 기업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데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CEO들은 탄력적인 탄소 제로 경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2050년 전까지 순 제로 배출량에 도달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이 미래의 위기와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회복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한 복구안을 함께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EO들은 코로나19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정부들이 기후 행동 관련 목표치를 줄이도록 압력받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야심 찬 기후 아젠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보여줌으로써 기업은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하고 배출량을 줄이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익성 또한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녹색 성장이 여전히 최고의 성장전략이라는 것을 지지함으로써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경제회복이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기후 계획과 동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CEO들은 정부가 경제회복기금에 대한 분명한 의제를 설정해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기후 관련 활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과 명확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화석연료 사용을 지양하고 환경친화적인 저탄소 회복탄력성 솔루션의 혁신을 촉진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며, 자연과 사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성명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전 세계가 1.5°C 행보를 따라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인류와 지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들의 성명서는 [지구의 날 연설](#)에서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이 원활한 회복과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과제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제안한 6가지 기후 행동 제안과 일맥상통합니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제안한 기후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깨끗하고 자연 친화적이며 공정한 변화를 통해 녹색 일자리와 비즈니스에 투자하십시오.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탈 탄소화를 가속해야 합니다.
2.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산업이 파리협정을 따를 것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규제하지 마십시오. 기업 규제를 위해 세금이 사용될 경우, 녹색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 이룩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화석연료 지원금을 중단하십시오. 우리는 회색 경제에서 녹색 경제로 전환해야 하며 공공 기금은 미래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화석연료 지원금은 종료되어야 하며 탄소배출을 하는 기업은 이에 마땅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4. 모든 재정 및 정책 관련 결정에서 기후 리스크와 기회를 고려하십시오. 투자자들은 지속 불가능한 성장으로 인해 지구가 치르는 대가를 더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5. 더 빠른 회복을 위해 협력하십시오.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는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 어떤 국가와 기업도 혼자 성공할 수 없습니다.
6.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십시오.

글로벌 투자자 커뮤니티 또한 이 메시지를 지지해야 하며 녹색 전환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4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관리하는 유엔 주관의 기관 투자가 그룹, 순제로 자산 소유자 연합(Net-Zero Asset Owner Alliance)은 최근 2050년까지 투자 포트폴리오를 순제로 배출로 전환하기 위해 서명국들과 협력할 것을 재확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시점이 1.5°C 미래를 향한 결정적인 도약을 할 때입니다.
저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더 나은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희망합니다.

[원문 보기](#)

3. 전 세계 150 여개 기업,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zero)'의 코로나 19 회복 촉구

본문은 과학적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유엔글로벌콤팩트, 위민비즈니스 연합(We Mean Business coalition)의 공동 보도 자료입니다.

유엔 지원을 받는 사상 최대 CEO 주도 기후변화대응 노력으로서, 주요 다국적기업들은 과학을 기반으로 한 온실가스 제로 경제(zero carbon economy)에 대한 자사의 지지를 다시 한번 공표하였고 국가 정부들 또한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욕, 2019년 5월 18일 - 총 2조 4천억 달러의 시장 자본과 500만 명이 넘는 직원들을 대표하는 155개 기업들은 전세계 정부들이 코로나 19에 대한 경제 지원과 회복 노력에 기후 변화를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코로나 19로부터의 회복과 관련된 논의가 활성화 되면서 과학적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에 참여 중인 기업들은 미래의 기후 급변으로 인한 충격에 대비해 회복탄력성 구축을 위한 정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산업화 이전 기온을 기준으로 평균 기온 상승 1.5°C 내 유지 및 2050년 이전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Net Zero) 달성 등의 목표를 포함합니다.

서명 기업들은 총 155개 기업으로 34개 분야를 아우르며 33개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BURBERRY
LONDON ENGLAND

Coca-Cola
EUROPEAN PARTNERS

CP
COLGATE-PALMOLIVE

Electrolux

**Hewlett Packard
Enterprise**

Nestlé

**Schneider
Electric**

Unilever

vodafone

본 성명서는 전세계 국가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수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들을 내놓고 파리기후협약에 준하기 위한 국가적 기후 정책들을 준비하면서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세계 주요 경제국들은 EU 피해 복구 계획(European Union Recovery Plan), 미국과 인도의 새로운 부양책, 그리고 올해 6월에 있을 G7 정상회담등을 통해 코로나 19 회복을 위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것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생명과 삶의 터전을 지킴과 동시에 번창하고 평등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코로나 19 사태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우리 노력의 중심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회색 경제에서 녹색 경제로 향하는 정책들을 통해 코로나 19 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지속가능하고 온실 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전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에게 녹색 성장이 최선의 성장 전략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의 야심찬 과학적 기반인 정책들을 환영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OurOnlyFuture

**155 COMPANIES, WITH
US\$ 2.4 TRILLION MARKET CAP,
AND REPRESENTING
5 MILLION EMPLOYEES,
ARE CALLING FOR POLICY THAT PAIRS
RECOVERY WITH AMBITIOUS CLIMATE ACTION.**

SCIENCE
BASED
TARGETS

**BUSINESS
AMBITION FOR 1.5°C**

이 155 개의 기업들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정했거나 곧 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성명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은 그들의 결정 및 조치가 모두 과학에 근거하였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가 “회색 경제에서 녹색 경제로의 빠르고 공정한 변화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 기후변화 관련 목표를 염두에 둔 정책과 자금 운영은 미래의 충격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며 맑은 공기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과학적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이사회 소속인 리라 카바시(Lila Karbassi)는 “각국 정부는 가장 최신의 기후 과학에 맞춰 정책 및 복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혼자 체계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상호 연결된 위기들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국제 공동체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협약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유엔의 지원을 받는 사상 최대 CEO 주도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통해 해당 기업들은 과학을 기반으로 한 야심찬 정책 및 지원의 길을 선도하며 미래의 충격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목소리는 [과학적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와 [1.5°C 를 위한 비즈니스 앰비션\(Business Ambition for 1.5°C\)](#) 캠페인 파트너들, 유엔글로벌콤팩트, 그리고 위-민 비즈니스 연합 (We Mean Business coalition)을 기반으로 모였습니다. CDP, 유엔글로벌콤팩트, 세계자원연구소와 WWF 의 협업으로 출범한 과학적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는 최신 기후 과학에 기반해 기업 기후 목표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합니다.

과학적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의 파트너인 CDP의 최고경영자 폴 심슨(Paul Simpson)은 “코로나 19의 확산은 현 경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더 회복력 있는 경제를 위해서는 과학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과학 기반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기업과 정부 모두를 미래의 기후 관련 사업 피해나 경제적 붕괴로부터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멘디루체(Maria Mendiluce) 위-민 비즈니스 연합(We Mean Business coalition) CEO는 “이제 정부들은 기업들이 과학 기반의 목표를 설정한다는 사실을 통해 1.5°C의 행보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에 경제를 살리고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피해 복구 정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동반한 회복은 기업들의 투자 및 혁신 속도와 규모를 증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일자리 창출, 건강 보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회복탄력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자원연구소 대표이자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SBTi) 파트너인 앤드류 스티어 박사(Dr. Andres Steer)는 “세계 경제를 되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재설정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약 10 조에서 20 조 달러의 공공자금을 들여가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불평등하고 취약한 고탄소 경제를 재건하는 것은 비극적인 일일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 155개 기업 대표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들은 자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과학과 경제에 기반해 최선의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도입된 기후변화 스마트 정책들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탄력적이고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문 보기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DGB 금융그룹



DGB금융그룹

DGB Financial Group

UNGC 가입: 2006. 7. 18

DGB금융그룹은 국내 최초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5월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비은행 사업라인 강화 및 수익원 다변화를 기함으로써 DGB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 DGB생명, DGB캐피탈, DGB자산운용, DGB유펜이, DGB데이터시스템, DGB신용정보 등 계열사 8곳을 보유한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의 경영이념과 ‘미래를 함께하는 Best Partner’의 경영비전을 가지고 질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DGB금융그룹이 기반을 두고 있는 대구·경북에도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DGB금융그룹은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국민 모두 장기간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위축된 경제활동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이 어려워지고 소상공인과 서민층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DGB금융그룹은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더욱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재난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DGB 현장지원단 운영

DGB금융그룹은 각 계열사의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기업들에게 신속한 금융지원 및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단은 DGB금융지주 시너지사업부, DGB대구은행 여신심사역과 기업컨설팅전문가, 하이투자증권 리서치&IB전문가, DGB캐피탈 기업여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자금지원, 금리감면, 대출상환 기한연장, 업황정보제공, 회사채 발행, IPO관련 금융상담, 기업대출과 리스, 할부금융 등을 지원합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DGB대구은행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본격화된 지난 2월 초부터 1,0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을 통해 직·간접 피해 기업의 초기 정상화를 지원하였습니다. 확진자 발생지역 외에도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였습니다. 4월 초부터는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기업여신 비중이 50% 이상인 주거래 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외에도 DGB대구은행은 정부의 '금융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일환으로 소상공인 1.5% 초저금리 특별대출 상품을 판매하며, 코로나19 피해기업들을 대상으로 종합 상담팀을 운영하여 현장 방문을 통한 신속한 심사를 지원합니다. 또한 만기 도래 대출 연장, 6개월 이자 유예, 유예 이자 분할 또는 일시납입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여 및 사업소득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DGB대구은행은 코로나19 피해 고객과 대구·경북 거주 고객 중 생활이 어려워진 급여 및 사업소득자 대상으로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17, 쓰담쓰담대출, 비상금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총 2,000억 원 한도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고객의 경우 영업점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비대면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 고객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보살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난 극복을 위한 기부 및 회사 인프라 제공

DGB금융그룹은 금융지원 외에도 인적·물적 자원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DGB금융그룹은 지난 3월 초부터 칠곡군 연수원을 경증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원 업무가 폭주하는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에 인력을 파견하여 신속한 업무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고객 안내 및 서류 심사를 위한 인력을 파견하였으며 대구시 행정복지센터 139개 소에도 선불카드 및 상품권 지급 업무를 위해 인력을 파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대구광역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해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지원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DGB금융그룹은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부하였고 기부금은 대구·경북에 각각 5억원씩 전달하였습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물품 및 코로나19 피해자 구호사업과 의료진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DGB금융그룹 경영진은 지역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급여의 20~40%를 반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반납한 급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 역시 임직원들의 자발적 성금과 급여 1% 나누기 운동으로 조성된 성금 1억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영업점이 일시 폐쇄되고 내점고객 감소 및 영업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DGB 금융그룹은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 전사적으로 위기 대응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룹 위기대응협의회 운영

DGB금융그룹은 코로나19를 비롯한 당 그룹 주요 위기로인들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그룹 위기대응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 계열사의 경영 환경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그룹위기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DGB대구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를 가정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코로나19 발생 1년차와 2년차의 거시경제 변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영향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위기대응 매뉴얼 가동

영업점 폐쇄에 대응하여 2차·3차 대체영업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부서별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여수산업무 및 고객 지원 관련 각종 영업방안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담직원 교육과 비대면 채널 고객응대 강화, 온라인 상품서비스 마케팅, 코로나19 금융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비대면채널 영업 활성화 방안들도 시행하였습니다. 영업점 소독과 일시적 재택근무 및 분산근무, 임직원의 직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개인위생관리, 사회적거리두기 등 조직 내 코로나19 대응 노력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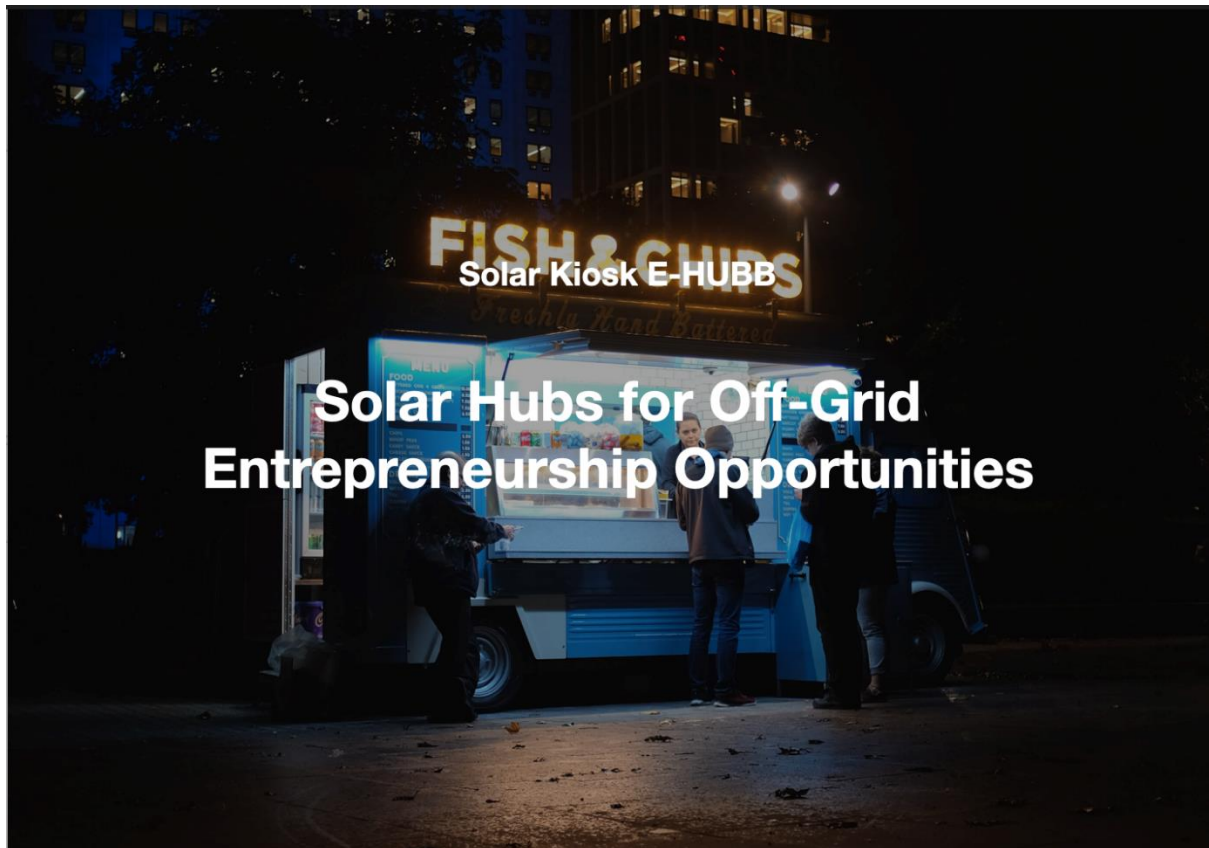
전세계적으로 선제적인 금융 정책들을 내놓으며 위기 대응에 힘쓰고 있지만 금융시장과 실물경기의 동시 충격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자영업자의 부실이 진행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수출산업의 경기가 악화되어 자동차, 기계, 철강, 섬유 등 주요 업종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품산업이 주요 기반인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DGB금융그룹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리스크 관리, 경영효율화, 대고객 관리 등 세부 실행계획과 로드맵을 도출하고 각 계열사 및 부서별로 업무와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해외 법인의 자산현황을 점검하고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위한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

향후 코로나19로 금융시장에서의 영업환경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DGB대구은행은 미래 영업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자문서 처리와 후속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업무자동화(RPA) 적용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변화하는 근무 형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 [SDGs 솔루션] 전기가 없는 지역, 태양열 허브로 밝히다



태양열 키오스크 E-Hubb는 식당부터 난민 캠프와 같이 기술 및 전기로부터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지역사회 내에도 배치할 수 있는 자급자족 형태의 모듈식 구조물입니다.

태양열 키오스크 E-HUBB 는 2012 년부터 동아프리카 내 전력망이 없는 지역사회에 태양열 발전을 통한 새로운 경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HUBB 는 모듈식이며 크기를 축소 및 확대할 수 있어 생필품 가게부터 극장, 의료 센터까지 다양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조물들은 사전에 제작되어 해체된 상태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외진 지역까지도 전달이 가능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태양열 키오스크 E-HUBB 는 4 킬로와트의 광전용량을 지닌 태양 전지판을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가동 용량을 연장시키는 배터리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은 다양한 가게 및 사업체들이 청정 에너지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난로와 전등과 같은 태양열 발전 제품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대략 20 만개의 제품이 판매되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태양열 키오스크 E-HUBB 는 서로 에너지를 공유하는 것 또한 가능케 해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 효율적인 소규모 배전망을 형성합니다. 다수의 키오스크들은 지역 상가를 상기하는 일종의 연결된 태양광 시장 중심지 (Connected Solar Market Centres)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업 중심지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230 개의 E-HUBB 가 설치된 곳에서는 직원들이 재고 관리와 같은 경영 관리 능력에 대한 2 만 시간에 준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E-HUBB 는 11 개국에 설치되었으며 500 만 명에 준하는 소비자들에게 보급되었습니다.

왜 E-HUBB 에 주목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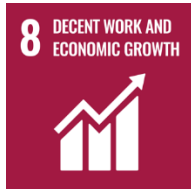
오늘날 지구상 15 억명이 전력 공급이 없는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정적이고 청정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전기 공급 부족은 곧 통신, 교육, 보건, 깨끗한 조리 기술, 보온 등과 같은 서비스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태양열 키오스크 E-HUBB 는 소외되고 동떨어진 지역들에 청정한 전기를 공급하며 그와 동시에 지역 경제 및 소비 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한 에너지

태양열 키오스크 E-HUBB 는 50 만 킬로와트 이상의 재생 가능한 전기를 생산하여 소외 지역 커뮤니티의 화석 연료 의존성을 매년 줄여가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E-HUBB 는 커뮤니티에 일자리 창출 및 경영 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 경영 및 혁신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을 제공합니다.

[자세히 보기](#)

3. [SDG 미디어 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식에서 행동으로

- 샘 발라지(Sam Balaji) 딜로이트 컨설팅 CEO 등 2 명



<좌측부터 샘 발라지(Sam Balaji) 딜로이트 컨설팅 CEO, 크리스토퍼 웰리스(Christopher Wellis)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 최고 지속가능성 책임자, 그리고 제스퍼 슬레이만(Jesper Schleimann) SAP (EMEA North and Ton der Greef) 최고 혁신 책임자>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20 년 1 월 21 일부터 3 일간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창립 20 주년 기념 SDG 미디어 존을 운영했습니다. 약 3,000 여 명의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 정부 및 유엔 지도자, 혁신가 및 사회활동가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 및 사회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브랜드, 즉 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매회 뉴스레터에 SDG 미디어 존에서 다뤄진 각 주제별 토크의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크에는 샘 발라지 (Sam Balaji) 딜로이트 컨설팅 CEO(CEO at Consulting, Deloitte), 크리스토퍼 웰리스(Christopher Wellis)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 최고 지속가능성 책임자(Chief Sustainability Officer at Hewlett Packard Enterprise), 제스퍼 슬레이만(Jesper Schleimann) SAP 최고 혁신 책임자(Chief Customer Innovation Officer, EMEA North and Ton der Greef, SAP)가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세 사람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인식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기업의 투명성 및 측정 가능한 접근방식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업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 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발라지는 “기업 또한 적시에 개입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최근에 기업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현황을 조사했는데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은 기업이 고려하는 우선순위 3 위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 중 20% 미만의 기업만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동이 부족한 상태이다.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다. 이는 복잡한 과정일 수 있으나, 행동과 변화를 요구하는 10 년이 시작된 만큼 기업, 정부 및 모든 이해 관계자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데이터는 이미 제공된 상태이기에 지속가능한 소비와 같은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경영진 차원의 행동까지 달성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때 직면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웰리스는 “우리가 진행한 평가에 의하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기업은 많지만 실제로 이 중 12%만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 및 실행하고 있다. 존재하는 운영 데이터를 매핑하고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식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술레이만은 “솔루션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선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측정 방식,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발라지는 “기업의 활동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기 위해선 투명성이 중요하다. 가시성 없이는 개선할 수 없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재무, 브랜드 평판 등에 리스크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대시보드를 생성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술레이만은 “지속가능성을 비즈니스 기회로 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나는 미래에 우리가 지속가능성이란 주제 속 경쟁하는 시대에 접어들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모범 사례 전략을 통합하고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갖춰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웰리스는 “우리는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공동 혁신을 시도하고 합의된 접근방식을 가지기 위해 협력해야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발라지는 “정부 또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장관은 앞으로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70% 가량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며 코스타리카는 지난 30 년간 열대 우림 밀도를 두 배로 높였다. 이처럼 정부, 학계, 기업 및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노력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명의 참여자들은 2030 의제를 달성하기까지 10 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토크를 마무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회원 뉴스

1. 포스코, 윤리적 광물구매 강화... '책임 있는 광물 구매 연합' 가입



- 포스코가 5월 20일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책임 있는 광물 구매 연합(RMI)'에 가입함
- RMI는 책임광물 원산지를 추적조사하고 생산업체의 모니터링 및 인증을 실시하는 글로벌 협의체로 분쟁지역 생산 광물, 불법 노동행위나 환경 관련 광물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춰옴
- 포스코는 기존에도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해오지 않았으나 이번 RMI 가입을 통해 분쟁광물 뿐만 아니라 책임광물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기로 함
- 포스코 관계자는 RMI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들과 소통하며 글로벌 공급망 내 사회적, 환경적 문제 해결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힘
- 포스코는 양극재 사업 비중을 2030년까지 17조원 규모로 키울 예정으로, 이에 따라 양극재 필수 원재료인 코발트와 같은 책임광물 구매에 대해서도 관리할 예정임

파이낸셜 뉴스

2. 우리은행, 여성 행원 유니폼 없앤다



- 우리은행이 6 월 1 일부터 국내 전 직원의 복장 자율화를 시행하며 은행 점포에 있는 행원급 여직원의 유니폼도 없애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직원의 개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고객 응대에 적합한 신뢰를 주는 단정한 복장 착용을 권장함
- 우리은행은 빠르게 변하는 시대 흐름과 세대 변화에 발맞추고 은행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복장 자율화를 결정했다고 밝힘

한겨레

3. 길바이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 길바이오가 5월 21일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함
- 이번 가입을 통해 길바이오는 CSR 및 SDGs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약속함
- 정재락 길바이오 대표는 길바이오의 기업활동을 통해 SDGs 달성에 기여하며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박석범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국내의 더 많은 바이오기업들이 UNGC에 가입하여 기업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힘

더 리더

CSR 뉴스

1. “AR 놀이터 만들고, 드론으로 마스크 전달” …UNGC, 국내 기업 ‘코로나 19 대응 사례’ 발표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5월 2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함
- 본 총회에는 반기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을 비롯해 회원사 대표와 실무자가 참석함
- 본 행사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참여한 “COVID-19와 기업 지속가능성 - UNGC 회원사 대응 사례집”이 출간되었음
- 사례집 발간과 함께 여성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TGE(Target Gender Equality)도 런칭했으며, TGE에는 CJ제일제당, 롯데, KT, SKT 등 9개 기업이 참여함

더 나은 미래

2. “ESG 투자 변방의 아시아, 이제 주류지역으로 부상”



- 제임스 로버트슨 UN PRI 아시아 대표가 아시아의 ESG 인식과 실행이 느리게 성장해왔지만 최근 1,2 년 사이에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고 밝힘.
- 이 성장은 ESG 투자와 수익률의 관계에 대한 오해 불식, 아시아 투자 기관들의 운용사 선정 시 ESG 기준 적용, 아시아 증권거래소들의 상장사 지속가능 보고서 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 아시아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금융시스템 개혁 계획이나 주요국들의 NGFS 적극 참여로 인해 아시아가 추후 ESG 투자 주류 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함.
- 로버트슨 대표는 또한 현재 아시아에서 스튜어드십코드가 확산되고 있으며 강화된 지속가능 보고서 규제로 아시아 지역의 ESG 투자가 확산될 것이라 내다봤음.

3.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 포함”



-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한다고 발표함.
-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국가기반시설 스마트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포함되는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의미함.
-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루도록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음.
- 그린 뉴딜의 일부 사업은 3 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임.

연합뉴스

4. 코로나 19 는 ‘여성 재난’… UN “여성 리더십 키우고 지원책 마련하라”



- 최근 코로나 19 위기 속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제니 해리스 영국 보건부 차관, WHO 의 역학 전문가 마리아 반 케르코브 등 여성 리더십이 주목을 받고 있음
- 이런 여성 지도자들의 대응 능력에 더해 코로나 19 로 인해 여성들이 겪는 고통이 증가함에 따라 UN 과 세계경제포럼은 여성 리더십이 코로나 19 위기 극복의 열쇠라고 강조함
- 세계경제포럼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보건의로 노동자의 약 70%가 여성이지만 이 중 상급 관리자 여성 비율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응하여 UN 은 4 월부터 코로나 19 속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WOMEN RISE FOR ALL’ 캠페인을 진행 중임. 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도 코로나 19 위기 속 여성을 위한 대책 마련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한국 또한 이런 전문가들의 권고를 기반으로 지난 27 일 유엔 여성기구 주최 화상회의에서 여성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보임

여성신문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5 월 16 일부터 6 월 1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0 곳 입니다.

1. COP/COE 제출회원

5 월 5 일부터 5 월 15 일까지 3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 한국가스기술공사
- 엑스트라마일커뮤니케이션즈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 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1-2 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매출액 USD 5,000 만 달러 이상 기업)>

KEB 하나은행, LG 화학, 두산중공업, 한국타이어, 미래에셋대우, 롯데쇼핑, 한국남동발전, LS 산전, 휴맥스, 서울주택도시공사, 롯데홈쇼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케이티하이텔, 한국감정원, 한화솔루션, CJ 대한통운, KDB 산업은행, 포스코, 대한항공, 한국마사회, 유한킴벌리,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1-2 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유니베라, 대덕섬유, 테라컨설팅그룹, 씨사이드코리아, 사람과세계경영학회, 한국자유총연맹, 충북대학교,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산업정책연구원, 한국도자재단, (사)내부장애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해양환경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서울산업진흥원

2019 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